



전체기사 경제정책 기업 부동산 금융 증권 국제 정치 제약/바이오 테크 사회 생활/문화 >

HOME > 기업 > 스타트업

스타트업

프랑스 첨단 기술 선보인 '테크포긱 2024'...양국 스타트업 '교류의 장'

이창원 기자 | 입력 2024.10.22 16:52



라 프렌치 테크 서울·한불상공회의소, '테크포긱 2024' 개최 프랑스·국내 스타트업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협력



한국전자전에 마련된 '프랑스 전용관(French Pavillion)'. /사진=이창원 기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한국과 프랑스 양국 혁신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양국 간 교류가 기술 혁신, 글로벌 협력 촉진을 위한 양국의 기술 산업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 '한국전자전 프랑스 전용관' 마련돼...네트워크 확장·협력 기회 모색

22일 라 프렌치 테크 서울(La French Tech Seoul)은 한불상공회의소(FKCCI)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Korea Electronics Show, KES)'에서 '프랑스 전용관(French Pavillion)'을 마련했다.

이는 전날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테크포굿 2024(Tech4Good 2024)'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6개의 프랑스 혁신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국내 스타트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CetraC는 항공우주, 자동차, 산업 4.0 등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시스템을 위한 FPGA-ASIC 기반의 고성능 네트워크 솔루션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전자 아키텍처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사이버 보안과 자율·자동화 작업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CetraC의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또 다른 참가 기업인 MicroFactory는 화장품 산업을 위한 시험관 내 마이크로유체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U-Skin, SmartPore, T-Skin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실제 인간 피부 상태를 재현함으로써 화장품 제품의 효능을 빠르고, 정확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MicroFactory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해 화장품 개발 주기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yscience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한 관리·프로젝트 제어 도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모델과 요구 사항 간의 자동화와 일관성에 중점을 둔 솔루션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용

이하계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

건물의 구조적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Feelbat는 연결된 센서를 통해 구조물의 균열, 움직임,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나 엔지니어링 회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도구를 제공해 건축물의 선제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Secure-IC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연결된 장치를 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보호하는 통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선보였다.

보안 요소·양자 이후 암호화와 같은 최첨단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중요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anomade는 터치 인터페이스, 생체 신호 모니터링, 구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감도·유연한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 중인 기업이다.

Nanomade의 센서들은 자동차·항공우주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에 통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VIP 패널 토론 '테크포곳 서밋' 미래 방향성 모색...“협력·혁신 기회 제공”



한국전자전에 마련된 '프랑스 전용관(French Pavillion)'. /사진=이창원 기자

이번 행사를 개최한 라 프렌치 테크 서울은 글로벌 라 프렌치 테크(Global La French Tech)의 지역체로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연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기업 단체다. 현재 476명의 회원과 149개의 한국·프랑스 기업들이 가입돼 있다.

지난 1986년부터 주한 한불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있는 한불상공회의소는 약 450개의 한국·프랑스 기업을 회원사를 두고 있고, 프랑스·한국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프랑스 시장에서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의 약 3만2000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95개국 124개 해외 주재 프랑스 상공회의소 연합의 일원이다.

이번 테크포곳 행사는 전날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의 한국 경

제 소개로 시작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동해 테크 생태계를 탐험했다.

또 오는 25일 개최되는 '테크포굿 서밋(Tech4Good Summit)'에서는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업계 리더들이 참석해 VIP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테크, 푸드테크, 뷰티테크 등 주요 산업들이 '테크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양국 스타트업·기업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와 양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피치 콘테스트 행사 등도 제공된다.

니콜라스 메르시에(Nicolas Mercier) 라 프렌치 테크 서울 공동대표는 "테크포굿 2024는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냐 샤이예브(Sonia Chaieb) 한불상공회의소 부대표도 "라 프렌치 테크 서울과 함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매년 이 행사를 질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며 올해 프로그램들은 양국의 스타트업이 더욱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기/벤처부



이창원 기자

✉ mediaeco@sisajournal-e.com

다른기사 보기 +



#프랑스 #한국전자전 #라프렌치테크 #라프렌치테크서울 #한불상공회의소 #테크포굿 #생태계 #네트워크 #혁신 #스타트업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 BEST댓글

많이 본 뉴스

- 1** [주간e종목]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SK하이닉스에 납품하나
- 2** [이기자 메디컬나우] 복지부 장관에 '방기선' 하마평...노연홍 긴장하나
- 3** 결승 '한중전' 성사...'월드컵' 4강 내전 통해 국내·중국리그 대표팀 가려
- 4** 한국만으로는 쉽지 않아...해외로 눈 돌리는 KGM
- 5** [증권상품 풍향계] 조선주 대표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 '눈길'

최신기사

대출규제 효과...9~10월 서울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9억원 이하

[Weekly Coin] 미 국채금리 급등·규제 리스크...비트코인 하락

믿었던 수출마저...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져 불확실성 ↑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도 삼성반도체 제칠까

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할듯...성사될까

전체기사

경제정책

기업

부동산

금융

증권

국제

정치

제약/...

정책
거시경제

재계
IT
자동차
철강
화학
유통
항공서비스
조선
중소기업
통신
스타트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시황
건설
부동산정책

은행
보험
카드
금융정책

시황
종목
펀드
채권

국제경제
미국
중국
일본
아시아
기타

국회
한반도

테크

사회

생활/...

칼럼

영상기사

카드뉴스

IR

ADVE...

PEOPLE

인공지능
블록체인

쓰다창업기
피플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오피니언

머니방위대
시승센터
현장&이슈
세상을it는리뷰
e.Shorts

사고
인사
부음



[시사저널 >](#)

[Livingsense >](#)

[매체소개](#) | [로그인](#) | [PC버전](#) | [사이트맵](#)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81 대성빌딩 2층

상호 : (주)시사저널이코노미 | 대표자 : 전육

발행·편집인 : 전육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기수

대표전화 : 02-6716-4400 | FAX : 02-6716-4410



© 시사저널e.

POWERED BY **NE**